‘증강현실기술’로 새 법문 만나다

日 고쿠라쿠지, ‘극락정토AR’ 개발… 청년포교 기대

박영빈 객원기자

법문의 내용에 맞춰 태블릿PC로 법당을 비추자 화면에 불보살과 용들이 춤을 춘다.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해 법문을 체험할 수 있는 ‘보이는 법문’이 탄생했다. 6월 1일 일본의 ‘라이브 도어 뉴스’, ‘VR 인사이드’ 등은 증강현실 법문 ‘극락정토AR’에 대해 보도했다.

극락정토AR은 일본 니이하마(新潟)현 오지야(小千谷)시에 소재한 정토진종의 고찰, 코쿠라쿠지(極樂寺)의 주지 아사다 코쥰(痲田弘潤) 스님의 발안으로 시작됐다. 코쥰 스님은 “신도와 사찰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문 방식에 도전하고자 했다”고 계기를 밝혔다. 코쥰 스님의 발안과 감수 하에 증강현실 전문회사인 비비 미디어 주식회사, 그 외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자들과 전통 불교미술작가들이 모여 만든 극락정토AR은 지난 부처님오신날에 열린 선행 발표회를 통해 처음 선보였다.

코쥰 스님은 “특히 지방사찰에서는 신도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데도, 젊은 세대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통해 젊은 층도 사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극락정토AR의 장점을 설명했다. 코쿠라쿠지에서 열린 선행 발표회서는 40여 명의 신도가 극락정토AR을 체험했다. 증강현실 체험을 위한 태블릿PC는 나무로 만든 전용 케이스에 담겨, 마치 창문을 통해 화면을 보는 듯한 효과를 연출했다. 개발자 측은 “사찰에서 사용하고, 또 법문의 위한 증강현실이기에 불구를 모티프로 디자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단순한 디자인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층 이탈 심각해진 일본불교
첨단기술로 접근성 높이기 위해
AR전문업체와 불교미술작가 등
의기투합해 AR법문 대중에 선봬



일본 고찰 고쿠라쿠지 측이 개발한 ‘극락정토AR’. 증강현실(AR)기술을 이용해 법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 사진출처=라이브 도어 뉴스

대중이 법문에 따라 불단에 모셔진 아미타불상이나 천정에 조각된 천녀, 용 등을 태블릿으로 비추자 증강현실 프로그램이 작동, 법문내용과 연계되는 일러스트가 화면에 나타나고 음향이 법당에 울려 퍼졌다. 15분간 진행된 법문 동안 대중의 탄성은 끊이지 않았다.

코쥰 스님은 “말하는 내용은 평소의 법문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직접 보면서 듣는 법문의 인상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극락정토AR을 소개했다. 또 스님은 “모두가 탄성을 내며 들뜬 분위기로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증강현실을 통한 법문이 향후 포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발표회에 참가한 한 신도는 “법문에서 묘사하는 설명으론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태블릿PC를 통해 직접 보면서 법문을 들으니 확실히 와 닿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신도는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부처님께 흥미를 가지게 한다는 생각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감탄했다,

코쿠라쿠지 측은 “증강현실을 통한 ‘보이는 법문’을 이용해 신도와 사찰 간의 유대감과 관계성을 새로이 구축함은 물론, 향후 지역 관광명소로서도 극락정토AR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쿠라쿠지 측은 부처님오신날 선보였던 초기 타입을 더욱 개선해 최종 완성된 극락정토AR을 6월 중 일반대중과 미디어매체에 공개할 예정이다.

하와이서 달랜 전쟁 희생 영령의 넋

日 신뇨엔, 2차 세계대전 희생자 위한 추모재 봉행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국 하와이 오하후섬에 위치한 진주만은 전쟁 희생양으로 얼룩졌다. 미국 태평양 함대 주둔지인 진주만을 일본이 기습 공격해 셀 수 없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하와이와 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특별한 추모재가 열렸다. 주최 측이 일본 종교법인 신뇨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뇨엔 총본산(원주 이토 신소)은 5월 31일(한국시간 기준) 미국 현충일(Memorial day)를 맞아 하와이 호놀룰루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신뇨 하와이 등롱 띄우기’를 개최했다. 아라모아나 해변에는 신뇨엔 불자뿐 아니라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미국 시민 5만여 명이 자리해 등롱을 띄우고 바다를 빛으로 수놓았다. 등롱에는 전쟁에서 희생된 가족의 이름과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적혔으며, 행사에 사용된 등롱은 모두 신뇨엔 하와이 지부에서 1년 동안 손수 제작한 것이다. 이에 앞서 신뇨엔 하와이 지부에서는 수시아귀(수륙재)를 봉행하고 전쟁 희생 영가를 위한 기도도 진행했다.

‘신뇨 하와이 등롱 띄우기’는 21년 전 신뇨엔 개조 이토 신죠가 하와이에 방문했을 당시 전쟁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할 방법을 생각하며 추모재를 기획했고, 그 후 20년 동안 매년 진행됐다. 초기에는 하와이 케히인라히 해변에서 신뇨엔 불자들을 주축으로 진행했지만 하와이주의 요청으로 일반인을 위한 문화행사로 발전했다. 7년 전부터는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뇨엔 총본산 원주 이토 신소는 “개조님과 영조인 쇼쥬신인은 개개인의 마음을 밝히는 위대한 가능성 신뇨(眞如)의 길을 개척했다”며 “오늘 신뇨의 등불은 세계평화를 추진하는 분명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하와이 아라모아나 해변에서 진행된 일본 신뇨엔의 전쟁희생자 추모재. 수만 개의 등롱이 해변가를 수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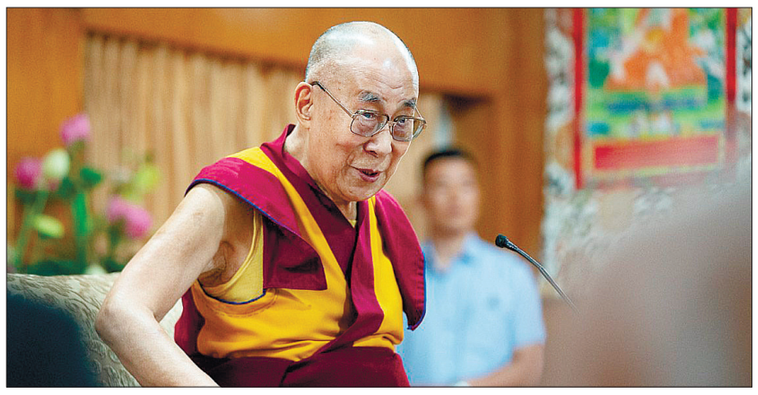
“트럼프 대통령, 정책 올바르지 않다”

달라이라마, 언론과 인터뷰 중 이례적인 세계정세 언급 ‘눈길’

티베트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세계정세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지난 5월 30일, 러시아 국영 통신사인 ‘리아 노보스티’와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은 세계의 여러 이슈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의견을 보도했다.

달라이라마는 먼저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와 티베트는 지난 수세기 동안 불교적인 교류를 이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러시아 연방에 속한 칼미크, 부랴트, 투바 공화국은 몽골계 주민들이 대다수로 전통적으로 티베트 불교를 믿어왔다.

이어 달라이라마는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오랫동안 불교와 접촉해 왔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서간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람살라의 거처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달라이라마 공식사무국

한편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가 수많은 갈등과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할 권리는 없지만, 내 견해에서 그의 여러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우디에 수십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매각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의 정책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달라이라마는 민주주의의 함양과 올바른 교육이 세계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대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대다. 사람들이 적절하게 생각하고 교육받으면 서로를 반목하고 죽이려 들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EU(유럽연합)의 각국은 지난 세기동안 서로 반목하고 죽여 왔으나 각국의 이익보다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하는 현실적 접근을 통해 EU를 결성하고, 지난 수십 년간 회원국들 간의 전쟁과 살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각국의 지도자들에 대해 “나라를 지도하는 큰 책임을 맡은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단기적인 선거결과만을 생각지 말라”고 충고했다.

달라이라마는 2011년 정치적 권한을 망명정부에 모두 이양한 이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삼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정세에 대한 언급은 이례적인 발언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리랑카 무슬림 장관들 일괄 사퇴

‘부활절 테러’ 수사 박차 전망

지난 4월 ‘부활절 테러’로 종교 갈등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무슬림 출신 장관들이 지난 3일 집단 사퇴했다.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위해 무슬림 출신 장관들이 물러난 것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리샤드 바티우딘 상공부 장관 등 9명의 무슬림 출신 장관급 인사가 사퇴했다. 사퇴 원인으로 “자유로운 부활절 테러 관련 조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바티우딘 장관은 그동안 부활절 테러범이 소유한 공장에 탄약을 공급하고 체포된 용의자를 풀어주라는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바티우딘 장관은 전면 부인했지만, 여론은 그의 사퇴를 강력 촉구해왔다. 스리랑카 불교 승려 아투랄리에 라타나는 무슬림 장관급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불교도가 시위에 나섰다.

여론이 악화되자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도 이들의 사퇴를 압박했고, 결국 이들은 일괄 사퇴를 결정했다.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들의 사퇴로 ‘부활절 테러’ 사건의 진실 규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사퇴한 라우프 하킴 수자원공급부 장관은 “무슬림은 부활절 테러 후 용의자들을 체포하는데 협력했지만, 현재 증오 범죄 등의 희생양이 됐다”고 외신들을 통해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